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063-2400-2410, 063-2414-2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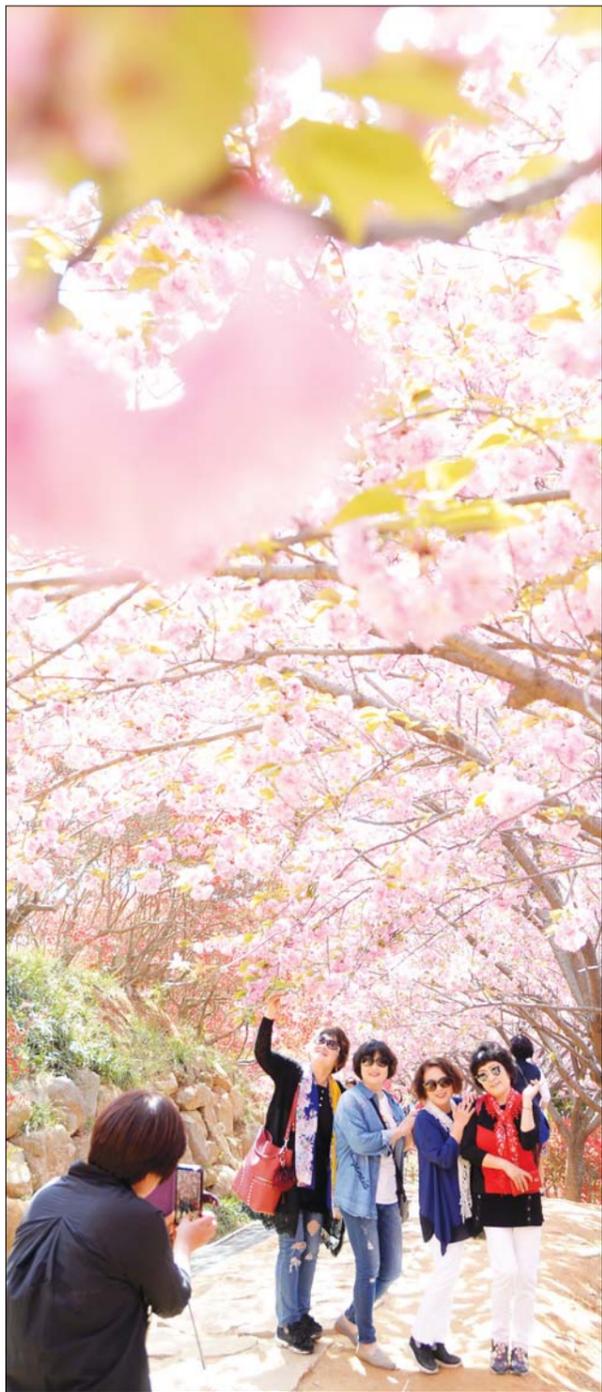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환자 걱정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음 3월 19일) 제227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완산공원 꽃동산에서 봄 만끽



22일 전주시 완산공원 꽃동산에 만개한 겹벚꽃과 철쭉을 구경 온 상춘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 '후끈'

서명 시작 2주일만에 39만3530명 넘어서

전주 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 서명이 시작된 지 약 2주일 여 만에 40여 만 명의 전주 시민이 참여하면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지난 19일 현재 39만3,530명을 넘어섰다.

서명운동이 지난 4일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불과 보름 만이다. 특히 전주시가 당초 목표했던 3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주 시민이 66만여 명을 감안하면 2명 중 1명을 뚫은 인구가 서명한 셈이다.

온라인 서명은 1만489명, 오프라인은 38만304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주시 지정 서명을 받는다면 창구는 40여 곳이 운영중이다. 각 구청 등 행정기관과 지역 금융기관, 그리고 객사 등 주요 시가지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지난 19일 현재 39만3,530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최근 혁신동 전성교회에서 펼쳐진 범시민 서명운동.

정치·경제 등 각분야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이
특례시 지정 관심 표출
한옥마을·동물원 등
곳곳에 당위성 힘 실어

서 이뤄지는 가두서명이다. 서명 열기가 이처럼 뜨거워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의 자존심이 특례시 지정이라는 관심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광역시 없는 전북에서 도청소재지이자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열원이 시민들 사이에서 집약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처럼 전주 시민의 특례시 지정 열의가 뜨거워지자 전주시는 한층 고무된 표정이다.

시는 전주한옥마을과 전주동물원 관람객 등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힘을 실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 시민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주시 보복도 커지는 분위기다.

시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당초 계획했던 내달 3일까지 이어가면서 특례시 지정 동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서명 마지막 날까지 모아진 서명부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기로 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특례시 지정 일정은 이제 국회 입법단 계만 남았다"면서 "국회 법안일정에 맞춰 서명부를 전달한 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 없는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 도입 절차 착수

삼락농정위서 논의된 기본계획 토대로 도민들의 의견 수렴키로

전북도는 22일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전북 공익형 직불제(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그동안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TF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평가, 2018)에 따르면 농업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수질 및 토양보전, 농업경관 제공,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도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

하기로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삼락농정위원회 TF에서 논의된 '농민 공익수당'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 유지와 토양환경 보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유지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지급대상자에게 이행조건으로 부여하고 이행점검을 통과한 농가에 대해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농업외의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자, 보조금 부당신청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동일금액을 연 1회 지급하며, 지급액의 50%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북도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적극적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

에 농민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대부분 지역 '초여름'

완주의 낮 최고기온이 29.7도에 이르는 등 전북도내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2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완주 29.7도를 비롯해 무주 29.5도, 익산 29.3도, 전주 29도, 임실 28.7도, 순창 28.4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지청은 23일 도내 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석훈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